

문화포커스

정읍시, 민방위교육·시민강좌

정읍시가 시민의 생명존엄과 안전한 삶의 실천을 위해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은 주체로 민방위대원과 시민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민방위교육 및 시민강좌를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14일 간이고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 대원 과 직장대원, 기술지원대원 각 대장 시민,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20일 오전 7시에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장이 지정된 장소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육을 신설해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일 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각종 학교를 순회하며 골든타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하반기에는 민방위보충교육과 여성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도교육을 실시하고 가을축제기간에는 자율참여교육으로 중앙로 일대에서 안전거리축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교월동 향교마을 안길 전래동화 주제 벽화거리 조성

김제시 교월동 향교마을 안길에 전래동화를 주제로 한 벽화거리로 변신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마을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단에서 공모한 '2016 주민공감정책사업-이웃과 공감하는 예술길 프로젝트'의 하나인 문화재길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벽화거리 조성은 김제제일사회복지관(관장 김희곤)을 주관으로 한국폴리텍 김제캠퍼스(학장 김주성) 학생 및 참여를 희망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완성되었다.

향교마을은 향교, 동헌, 내아 및 석산공원 등의 역사·문화유산들이 함께 하는 마을로 이번에 전래동화인 '의흥은 형제' 등을 주제로 한 벽화거리가 조성되어 전통과 문화의 향기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평범했던 마을 골목길이 지역특색과 어울러지는 벽화거리로 조성되는데 함께해준 김제제일사회복지관, 한국폴리텍대학 등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월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제일사회복지관에서는 이번에 조성된 벽화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길 탐방' 전래놀이 배우기 '전통놀이 체험' 및 레인보우콘서트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곽태기 기자

정읍시 고모네정터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설치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 (영)고모네정터 로컬푸드(대표 이병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하는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7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인근 북면 화해리 69-10번지 2천 492㎡의 부지에 시비 3억2천만원에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1억700만원)를 더한 총사업비 4억2천700만원을 들여 건축면적 330㎡의 '고모네 정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판매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대회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부안농악의 설장고 명인이었던 고은 이동원 선생을 추모하는 경연으로 호남 유도 '부안풍물'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설장고 명인 이동원 추모 농악경연

5월 8일 부안군청 광장서 전국 유명 8개팀 참가 풍물기량 겨뤄

부안과 전북을 대표하는 설장고 명인 고은(鼓巖) 이동원(1922~1990) 선생을 추모하는 제4회 전국농악경연대회가 5월 8일 부안군청 광장에서 개최된다.

부안농악보존회(회장 이옥수)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부안농악의 설장고 명인이었던 고은 이동원 선생을 추모하는 경연으로 민족의 흥과 슬픔이 담긴 우리 가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의 멋과 애환이 깊게 베어 있는 호남 유도 '부안풍물'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국 유명 농악 팀 8개팀이 출전해 일반농악(풍물) 20분 내외로 진행된다.

시상은 일반부 고은(鼓巖)대상(국회의장 상)과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우수상(전북도지사상), 장려상(부안군수상·부안군의회의장상) 등이 주어진다.

이옥수 부안농악보존회장은 "우리 가락의 대중화와 후진양성에 헌신하신 고은 이동원 선생의 뜻을 기리는 대회로 기량이 뛰어난 전국의 풍물인과 관림계가 어울려 신명나는 경연의 장을 마련했다"며 "부안농악보존회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육성해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은 이동원 선생은 1930년대 말인 10살 때부터 장구 명인 김홍집 선생에게 장구가락을 사사받았다. 이후 고창 상회 박성근 농악대와

신두옥농악대에서 최막동과 함께 활동하면서 전성기를 맞는다.

1950년대 말에는 부안 김경천 박남식과 함께 부안여성농악대를 창단해 장구 후계자 양성에 집중한 결과 전남 여수 임재식 익산 김형순 등 다수의 명인을 배출했다.

이 선생은 1961년에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전북도 농악대 부장부문에 출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최고조의 실력을 과시했다.

이밖에 1982년 전북농악경연대회에서 부안상서농악을 지도해 최우수상, 1989년 전주대사습 농악부문 차상·전라예술제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1987년 부안군민 선생에게 장구가락을 사사받았다. 이후 고창 상회 박성근 농악대와

김제여협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견학

광주 디카의 거리 등 방문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순애)가 김제여성친화정책에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져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은 지난 29일 광주 북구 신인동 디카의 거리를 방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보다 살기좋은 공동체로 변모해 가고 있는 민관협력의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신인동 디카의 거리는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역할이 눈에 띄는 전국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종전의 어둡고 인적이 드문 거리였으나, 지역 청소년 단체와 미술인 등 주민들이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밝고 화려한 골목길로 재탄생하여, 전국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관광 필수 코스로 급부상한 사례이다.

특히 이 거리는 약 300여 미터 구간을 따라 여성친화의 골목, 파란 바다의 골목, 신기한 조형물의 골목, 푸른 녹색의 골목 등 4개 아이টে็ม으로 조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거리도 충분하다.

이와 같은 우수사례는 김제시가 내년도 요촌근린공원과 부영아파트 1.2차 아파트 사이도로를 여성친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순애 회장은 "이번 행사는 2016년도 김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인근 관광지인 죽녹원 방문을 통해 회원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새만금 33센터 및 새만금내부개발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을 수 있어 보람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

김제시, 모악산축제 준비 만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29일 2층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축제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모악산 신비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김제 모악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모악산은 전북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1,400년 고찰 금산사에서부터 동학농민운동, 기미독립만세운동 등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및 신흥민족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종교박물관이기도 하다. 김제모악산축제는 이런 모악산만이 가진 신비함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명산 모악 등반대회, 역사문화탐방, 숲 이야기 순례음악제, 종교문화홍보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승복 부시장은 "등산로, 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모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교통편의, 노점상 단속, 먹거리 제공 등 부수간 긴밀한 협조로 업무에 능수가 없게 모악산축제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제=곽태기 기자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한다

정읍시,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 수거

정읍시가 무단방치된 자전거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처리하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다.

조사에 따르면 시청 자전거 보관대 11대, 신태인읍 자전거 보관대 4대, 입암면 파출소 10대, 칠보면 태산초비문화관 1대, 정령동 자전거보관대 3대, 내장상동 파출소에 16대 등 총 45

대가 무단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예정 안내문을 부착해 자전거 수거를 유도하고, 안내문 부착 후 10일이 경과하면 시에서 직접 수거해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할 계획이다. 또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14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안내한 후 공공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재할용, 폐기 등 6월 10일까지 강제처분할 방침이다.

김성기 시장은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자전거를 방치하면 쉽게 녹이 슬고 관리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자전거보관대는 불 일을 보는 동안 잠시 자전거를 주차하는 공간으로만 이용하고, 이용 후에는 집 내부 등 안전한 장소에 자전거를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gift set.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